

2025년 12월호(제 252호)

소중한사람들

눈

까만 까치 한 마리
자태를 뽐내며
작은 트랙에 앉는다.

흰 고양이 한 마리
어린 새 잡아
높이 올렸다 내렸다
장난 삼아 가지고 놀다.
시간이 갈수록
새는 죽어간다.

밤새 눈이 내렸다.
양상한까지는
오랜만에
하얀 눈꽃을 피웠다.

원망, 분노, 눈물...
온갖 시름을 다 알고 있는
트락은 아무 말이 없다.
그것들이
눈 속에서 타식해질 때까지

그저
하얗게, 하얗게
눈으로 덮고 있을 뿐이다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

가족

2004년 1월, 모교인 인일여고에 홈페이지가 생겼다고 친구가 전화로 알려주었다. 나는 서툰 서평 송배리 다들더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아 그곳에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세계가 있을 줄이며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끝마다 삼십 년 전의 추억이 되 살아나고 나의 여고시절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저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파서 삼십 년 세월이 살갑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만 했던 친구들의 얼굴이 있고 우리들을 자녀처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가르쳐 주시던 은사님들이 글게 높은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옛 친구들과 세상 살아가는 이 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날 밤, 글 하나를 써서 올렸다. 인터넷에 글을 써보 가는 난생 처음이었다.

아들 셋, 딸 하나

나에겐 아들 셋, 딸 하나 네 명의 자녀가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다. 아들 둘은 내가 낳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1989년 어느 봄 날, 우리 교회에 남루한 웃을 입은 한 남자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예배 시간이라서 들어 왔다고 했다. 아이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버지는 언뜻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교회에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갈 뿐 어디에서 있는지 누구인지도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철이 바뀌어도 그들의 웃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 아버지는 두 아이가 이 세상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언제나 양손에 꼭 붙들고 있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그해 여름 7월31일은 가장 무더운 날이었다. 오후 3시쯤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 시간에 울면서 다급하게 말하는 한 소년의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나니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날 뿐이었다.

"밖에 나가 누워든지 어른을 붙들고 부탁하러라. 우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내가 곧장 그 곳으로 갈게. 그 곳이 어디니?"

나는 비로소 그 곳이 성남인 것을 알았다. 우리 교회는 종로 57에 있으니 바빠 떠 나도 언제쯤에나 도착할 것인가? 몇 분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2학년인 어린 딸아이들이 이 세상에 남겨 두고

빈소를 지키며 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 아버지는 깊이 병든 몸으로 왜 성당에서 종로 57의 우리 교회까지 먼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아마도 저 아이들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병든 아버지의 기도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잘 길러 줄 새로운 부모를 부지런히 찾으셨으리라. 아 그 후로 종어 내가 뽀뽀한게 얼마나? 나는 가슴이 뻥이 시작됐다. 우리 부부를 그렇게 착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믿으셨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백재에 매장해 주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 아이는 우리 큰 애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 아이들이 우리 집의 장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집엔 아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네 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다. 그 날 부터 19명 우리 아파트엔 6명이 복달되기 시작했다. 방 하나엔 아들 셋이, 작은 방엔 딸 아이가 우리 부부는 부엌엔 거실에서 살았다. 아침이면 하나 뿐인 화장실엔

세면실에 기다란 줄이 섰다. 나는 모든 것에 서둘고 잘 해낼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나를 믿고 나에게 이 아이들을 서슴없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믿음을 실랑 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에게도 안심 시켜 주고 싶었다. 그 아이들이 나에게도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초등학교 6학년 이었던 그 아들은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시켜주지 못하고 참고서 몇 권만 사주었을 뿐인데 단 번에 외대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우리부부를 기쁘게 해주었다. 아젠 다 커서 너무 멋지고 잘 생기고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 딸아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랐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딸아이가 아빠를 빼어 달아 미인이라고 칭찬이다.

나는 지금도 '자녀가 멋지세요?'물으면 '아들 셋, 딸 하나.' 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물론 그 말에 '와! 요즘 세상에 무식하게 멋이나 낳았다.' 하는 소리가 이어질 것을 알지만 말이다. 나는 아버지날에 네 개의 카네이션을 하루 종일 가슴에 달고 다닌다. 그러면 여지없이 '젊은 여자가 존스럽게 지게 봐야.' 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 난 존스러워. 존스러워도 나는 종이 카네이션 네 개나 받을 수 있는 엄마 또 있으면 어디 나와 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이튿날 밤에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어젯밤 내가 쓴 글에 댓글들이 예뻐 리본처럼 대롱대롱 달려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이 글을 읽고 예수 믿고 싶어졌다'고 써놓은 것이다.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가슴이 '쿵쿵' 소리를 내며 떨려왔다. 글 하나로 예수를 전할 수 있구나..... 그 댓글은 하루 종일 내 눈앞에 어른거렸고 글을 쓸 수 있는 밤을 기다리게 했다. 그 날 밤에 글을 또 하나 써서 올렸더니 '내가 이 글을 읽고 자살하러던 생각을 버렸고 삶의 목적이 생겼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나는 너무 기뻐서 흥이 절로 났고 밤마다 글을 쓰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루 종일 쉬 새 없이 일하는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라 할 땐두 시부터 새벽기도 시간 전인 네 시까지 뿐이었으니 매일 밤을 허양해 새우며 글을 써내려간 것이다. 글을 쓰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여 영영 옮기기도 했다.

밤마다 글을 쓴 지 두 달이 되어 갈 즈음,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매일 밤 인일여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글을 인쇄해서 주변의 이웃들과 돌려 본다고 했다. 또 내 글이 새벽 3~4시 경에 인터넷에 올라가니 가장 먼저 댓글 달기 경쟁까지 벌어졌었다. 그러다보니 인쇄해야 하는 글의 분량이 늘어 글들일수록 많아져서 이웃에게 나눠 주 기 어려우니 책으로 발간해 달라는 요청의 글이 올라왔다.

"나는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이므로 책을 출판할 여력이 없어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자 그 이튿날 오산 성심병원장 조순호 박사님이 주관하고 홈페이지 인터넷 독자들이 내 글을 책으로 출판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책이 나오기도 전에 독자들이 선금을 낸 것인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손길들이 모여졌다. 한 달 후 조순호 박사님은 "좋은 책으로 출간하여 그 이름의 영광대로 발송해 주세.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된 일이 될 것 같아요"라며 내손에 천만 원을 건네주고 가셨다. 책으로 출간된 것도 아니고 그저 인터넷에 올라가 세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나의 글을 나중엔 책으로 받을 것을 믿고 선금을 내준 그 이름들을 놓고 나는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손길 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고 싶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내 글들을 한 권의 책(출고) 있는 사람과 함께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마로 태어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초판에 3,000권이 나왔다. 이미 선금으로 받은 천 명의 명단을 놓고 책을 발송하고 나니 2,000권이 남았다. 이 책들을 평생 동안 두둑두둑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9월 어느 날, 일간지인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가 나를 찾아와 인터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단번에 거절의 뜻을 전했다.

"기자 양반! 왜 이렇게 딱한 부탁을 하요.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고 인터뷰 한다면 다 웃을 것이고, 또 의사가 환자 고쳐 놓고 인터뷰 한다면 더 크게 웃을 것이고, 하물며 목회자 사모가 이웃을 위해 손뼉만큼 일하고 인터뷰 한다면 당연히 할 일을 하고 떠드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단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직하게 기사를 써줄 것을 약속 받고 인터뷰를 해 주었다.

그 이튿날 동아일보 사회면 전면에 내 기사가 났다. 신문에 기사가 나가지 곳곳에서 내 책을 찾게 되어 남아 있던 2,000권이 다 나갔고 새로운 주문이 쇄도했다. 나는 내가 쓴 글이 책이 되리라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더구나 그 책이 판매될 줄로는 상상도 못했다. 내 책은 출판되자마자 만권씩 3쇄에 들어갔다. 그 이후 내 책은 아무런 광고도 없이 술술 팔려 나갔다. 주님은 책을 판매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나를 위하여 기발한 전략을 세워 두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입소문이었다. 내 책은 광고 한 번 없이 그저 입소문으로만 팔려 나갔다. 내 책의 자리를 전혀 할당하지 않던 서점들이 하나씩 돌씩 내 책을 독자들 눈에 띄는 좋은 자리에 진열하기 시작했다. 이 곳 저 곳에서 책 주문이 쇄도하자 아이들이 나에게 말했다.

"어머!! 어머니는 지금 위기를 땀했어요."

"위기라니? 무엇이 위기야?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

"어머!!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나 질병으로 고생할 때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도 해도 쉬지 않고 찾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가 위기인 줄 알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배부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돼 나갈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때는 신앙의 위기가 되지요. 그동안 어머니는 작은 수입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동안 매일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지금은 많은 돈이 들어오니 바로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실어하시는 줄 아세요? 믿음을 실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외에 남가 놓는 것을 실어 하세요. 그러니까 웃어 두 벌이던 한 벌을 이웃과 나누야 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장님이 반백 들었다. 아들들을 존인심아 내 책을 앞에 놓고 주님께 서원했다.

"주님! 이 책의 내용은 아십 년간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이며 책은 독자들이 돈을 거두어 만들어 준 것이므로 저는 모든 것을 거저 받은 것이니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의 수익금을 다 쓰셨습니까?"

주님께 서원하자 이상하게도 그 날부터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곳곳에서 나를 강사로 초청하기 시작했다. 2004년 12월 미국 뉴저지에서 집회 초청을 받고 오심여 평생 동안 한 번도 가본 일 없는 지구 반대편의 알고 먼 나라 미국을 향했다. 눈이 내린 뉴욕 공항에 도착하니 나구용 목사님과 나영자 사모님, 교회 성도들이 마중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과 성도들은 나에게 뉴욕의 야경을 구경시켜 주었다. 세계적인 도시 뉴욕은 거리가마다 사람이든 성탄의 기쁨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야경은 노래와 함께 울려 퍼졌고 거리에는 감탄의 탄성이 메아리쳤다. 나 역시 꽃노래를 부르며 그 멋진 도시의 축제 속에 찾아들었다. 그 때, 반백이는 불빛으로 익숙해진 나의 눈이 그 곳에 딱 멈췄다. 어느 교회 담벽에 종이처럼 구겨져 찢을 자고 있는 노숙인이 있었다.

"교회가 저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저렇게 밖에서 자지 않아도 될 텐데..."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나 목사님이 곁에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저 곳이 교회 건물 담벽이어서 노숙인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건물 같으면 잠을 자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내쫓고 말아요."



그 때 목사님은 내 가슴에 깊이 꽂히는 말 한마디를 던졌다.

"사모님! 한국 노숙인은 더 많아해요."

나는 몰랐다. 뉴욕의 눈이 부시도록 휘황찬란한 거리에서 짙짙거리며 밀려다니는 사람들과 햇속까지 스며드는 주위와 굴주림 속에서 죽은 듯이 살고 있는 노숙인들이 모두 나의 이웃이었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삶을 애는 주위에 얼음장 같은 땅 위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던 홈리스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한국 노숙인은 더 많아해요"라는 말이 귀에서 메아리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만 보였다. IMF 때 늘어난 실업과 경기 침체로 노숙인들이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가 시끄럽게 떠돌았을 텐데, 나는 무관심하여 IMF 이후 7년이 지난 그때까지 노숙인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었다. 아니, 그들이 나와 함께한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나는 매일 밤 나를 고민해 빠뜨리는 노숙인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떨쳐버리기 위해 어느 날 새벽 현지를 답사하러 청량리로 나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겨울 새벽의 차디찬 공기 때문에 몸이 덜덜 떨려왔다. 청량리역 벤치와 건물의 후미진 곳에서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은 울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다. 어쩌면 저들 중에는 어젯밤 침들어 오는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얼어 죽는 자들도 있겠다 싶었다. 청량리 뽕골다리 건너에 가니 그곳에 노숙인 몇 명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서성이고 있다. 아직 컴컴한 어둠속이지만 그 곳에 와있는 노숙인들이 할아버지인 것을 알았다.

"왜 여기에 벌써 와 계시요? 애 짐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야침을 주나 보군요."

그런데 이가 다 빠진 그 할아버지의 대답은 달랐다.

"이따가 11시 40분에 주는 점심 먹으려고 왔어. 이제 조금 있으면 줄을 길게 서는 데 함께나 쓰는 놀들에게 우리처럼 힘입는 늙은이들은 뒤로 밀리기 앞무지. 그래서 이렇게 일찍부터 앞자리에 와서 줄 서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주려면 아침 밥 좀 줘. 우리들은 밥 못 먹으면 죽어 속이 나뻐들처럼 한끼 먹어도 되고 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들은 한 끼의 밥이 그냥 밥이 아니고 목숨이지."

"할아버지 만약 재가 밥을 드리게 된다면 반드시 새벽밥을 드릴게요. 그러나 지금은 밥을 지을 주방도 없고 그릇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나의 등말가 말하려는 작은 소리를 들었는지 그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밥 못두면 물을 주면 되잖아. 원 한벽들이 그렇게 많아. 어쩌구 저쩌구 말들만 하지 말고 따뜻한 물 한모금만 해. 아니 물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따뜻한 물 한모금"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왜 천둥치는 소리로 들렸는지 모른다. 나는 평소엔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일이 어찌 이렇게 엄청난 상을 받나 의아해 했다. 먹을 것을 주고 물 한 모금 주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정말 쉬운 일이다. 밥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주지 위해 땅 팔고 집 팔아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알아듣지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시키셨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으랴

아무리 곰곰이 기억해 보아도 물 한 모금 주는 그 쉬운 일을 내가 실천한 기억이 없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회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주님! 저는 이렇게 무자비한 자요, 우정한 자입니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자고 일어난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따뜻한 물 한 모금 준 기억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중송니까?”

청량리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물 주전자와 이동식 가스레인지와 물통을 사러 시장으로 나갔다. 그것들을 준비해 놓고야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었다. 혹시 내 마 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 있다면, 내 눈이 자꾸 무릎을 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룩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 아가 다 빠진 노숙자 할아버지로 변장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야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단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야, 이 사람들이 너무 춥단다. 네가 입을 것을 주어야, 이 사람들이 너무 외롭단다. 네가 그들 곁에 함께 있어 주어야.”

나는 그 날부터 노숙인을 연민하는 깊은 상사병을 앓았다.

온 대지가 공공 얼어붙은 새벽길, 서울역 지하도에는 비가래린 듯 물이 질척하다. 누군가 소변을 본 오물인 듯 그 물에서 냄새가 진동한다. 여기 자기 움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노숙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도 몸이 속수무죄로 움츠러든다. 어쨌만 노숙인이 없어 죽었다는 뉴스를 들어서인지 명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자고 있는 노숙인들이 혹 죽은 것이 아닐까 눈여겨보게 된다.

노숙인들과 만나던 첫 날, 나는 정말 낯설고 무서웠다. 어디 며칠이나 베틀나 보자 하는 비웃음으로 물통을 발로 걷어차고, 엉덩이를 만지고, 내가 뻗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것을 해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스치기만 해도 가슴에 끓고 있는 분노가 용암처럼 터져 나오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도울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여기서 말던 방해와 오해와 가시 같은 비판을 감내해야만 했다.

어떤 이들은 “노숙인들은 알하기 싫어하는 게요른 자들이나 배고파 굶어죽어도 마땅하다”거나 “그들을 돕는 것은 악을 돕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나의 뜨거웠던 마음은 이내 찬물을 끼얹은 듯 사그라지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아침,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인 사역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한통의 이메일이 왔다.

“니로 인해 한 사람의 노숙인이 한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하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거기에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부자를 만나시거나 권력자를 만나시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그저 보통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 다. 노숙인들을 복음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저 잠잘 곳이 없어 길에서 자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불쌍한 이웃이라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입을 것이 없어 떨릴 땀고 있는 형들은 모 습만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형편이 되었느냐고 질책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머리 돌 굴 없이 유리하셨던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큰 것은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사모님께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밥이나 빵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진심한 사랑입니다.”

나는 이 편지를 뜨거운 회개의 눈물로 받았다.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선한 소원이리런 주님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다. 내 가슴에서 귀찮고, 싫다고 뱉어버리지만 없는다면 그만 하려고만 있어도 반드시 들어 주신다.

동역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새벽 금식은 봉사자들을 얻기 어려워져 말야 봉사하는 단체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금식을 하기로 했다. 지금은 컵라면을 주고 있지만 조만간 뜨끈한 국밥을 줄 수 있게 해 줄 것을 믿었다. 우리가 노숙인들을 맞이하는 현수막에는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사회와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그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이다. 컵라면을 다 먹고도 그들은 돌아갈 줄을 모른다.

“뭐 도와 드릴 것 없어요?”

주위를 빙빙 돌다가 그릇을 차에 날라다주고 청소도 함께 하면서 즐거워한다. 착하고 순한 양 같은 노숙인들... 나는 새벽마다 예언을 만나려 서울역으로 달려간다. 주님께서 각양의 노숙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그 곳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주일 새벽같은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시간이 지나도 밝아질 것 같지 않았다. 노숙인 금식 차장은 대형 석유 버너와 물통, 김치 등이 가득 실려 아섯집 차량보다 짐을 많이 싣고 달린다. 오늘 새벽길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가슴이 설레고 기쁘다. 왜냐하면 노숙인 아침 금식을 시작한 후로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뜨끈한 밥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컵라면에서 떡국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슴 저 속에서부터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은 붉은 팔과 검은 통을 섞어 지은 하얀 밥을 주려고 퍼 올릴 때 코끝에 감도는 밥 냄새가 이 세상 어떤 향기보다 좋았다.

우리의 금식 차장이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던 노숙자들이 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금식 장소에까지 날라다 준다.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금식을 기다린다. 주일 새벽인 오늘은 서울역 지하도에서 예배를 드린다. 노숙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냄새나는 지하도로 벽에 의지하여 냉기가 엄습하는 언 땅바닥에서 추위와 싸우며 잠을 자고 일어난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서서 찬양을 한다. 유일한 익기는 그들이 내는 목소리다. 찌지도 못한 검은 손을 높이 들고 부르는 찬양, 눈물이 흘러내려 얼굴은 얼룩덜덜 설고 말쑤 마다 울려 퍼지는 아멘! 아멘! 굶주린 그들에게 밥을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한 일인가

주일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그곳에 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한 노숙인이 헌금을 했다. 그 헌금을 건네받는데 한지 뜨거운 노발이 활짝 웃어올랐다. 부자의 몇 백보다 더 많은 것을 낸 노숙인의 헌금 천 원. 그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냐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예배에는 변화가 있다. 노숙인에게 아침 금식을 나누어주기 전에 드리는 예배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에서 이전 감사가 나온다.

서로 싸우며 새치기하던 그들의 줄서기가 변하여 잔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자기 옆에 세워주는 양보의 줄서기가 된 것이다. 그들의 줄서기는 그들의 줄서기다. 사람들이 식사하려 평소보다 더 많이 오는 날에는 준비해온 음식의 양이 부족해져서 바로 내 앞에서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의 밥그릇을 불쌍한 노인들에게 가까이 내어주는 것이다.

주님은 주일 새벽 서울역 지하도로에 찾아 오셨다. 이 산으로도 알고 예루살렘으로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노숙인 한 명이 자

기 열자리에 신문지를 땅에 깔아주며 나보고 그 곳에 앉으라고 했다. 그들 곁에 앉아 손뭉쳐 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기쁨을 이 세상 무엇보다 바꾸려

옆에 앉은 노숙인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모님! 우리 노숙인들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주님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주님!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한 톨 없이 다시 노숙인 센터를 임대해 보려고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마침 서부역 근처에 지하 85평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건고하고 아담한 건물이 부동산에 나와 있었다. 지하를 임대 받으려고 건물 주인을 만났다. 그러나 그 주인은 잘라 말했다.

“이 건물은 영구히 내가 살려고 좋은 자재를 써서 직접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집 옆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 날부터 재수가 없어서인지 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을 팔려고 해요. 절대로 임대는 안 됩니다.”

매매 가격이 우리로서는 만저보지도 못할 돈이었다.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오다가 그 집 기둥에 짐을 발라 ‘빚’을 했다.

“주님! 이 집을 찜합니다. 이 건물을 주시면 지하에는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침실을 나누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1층에는 병

이 나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숙인들을 치료해 주는 무료 진료소를 만들겠습니다. 2층과 3층에는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을 데려다 먹고 자며 생활하게 하는 노숙인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할 훈련을 시켜서 건강한 가정인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려보내는 곳으로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말하는 모습이 남아지거든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언젠가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그 집을 나오며 건물 전경을 잘라 한 장 사진에 담았다. 그 날은 중보기도회 날이었다. 기도 제목은 노숙인 전용 교회가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다. 기도회가 끝난 후 기쁜한 얼굴의 한 여인이 나와 면담하기를 요청했다. 그 날 처음 중보기도회에 참석한 분이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발명되는 소중한사람들 소식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컴퓨터로 인쇄한 소식지는 물기가 묻으면 번져서 글씨조차 정확히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숙인을 위하여 무언가를 후원하겠다고 했다. 새벽에 서울역에서 천 명이 먹는 한 끼 식사비일까? 아니면 매일 예배 후에 먹는 점심 식사비일까? 어느 부분을 감당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어 보려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모님! 이 소식지에 보니 노숙인 전용교회로도 쓰고 자할 쉼터로, 무료진료소로 쓰려고 사모님이 ‘빚’ 해놓으셨다는 건물이 있네요. 제가 그 건물을구입해 드리고 싶어요.”

“네? 뭐라고요?”

“여기 소식지에 ‘우리들의 꿈’이라고 쓴 글에 사모님이 침 팔려 판매 놓은 건물 말이에요.”

그 날 중보기도회는 기쁨과 찬양과 눈물의 기도회가 되었다. 주님은 께뻑 놓은 건물을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주신 것이 아니라 빚고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주셨다. 서울역 중립동에 자리 잡은 소중한사람들 센터는 그날 그렇게 세워졌다. 중립동 소중한사람들 센터 지하에서는 명절도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300명이 넘는 노숙인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드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침실을 먹고 나누는 곳이 되었다. 1층에는 병이 나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숙인들을 치료해 주는 무료 진료소가 있는데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이 친히 찾아 오셔서 병든 노숙인들을 치료해 주고 있다. 2층과 3층에는 갈 곳 없는 노숙인이 먹고 자며 생활하는 노숙인 쉼터를 만들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할 훈련을 시켜서 건강한 가정인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려 보내는 곳이 되었다. 내가 아무 것 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한 그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대하자. 아버지가 내 대신 등장하실 때이다.

눈에 띄던 노숙인이 보이지 않을 때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한다. 하나는 무언지 잘 되어서 노숙의 삶을 정산하고 그리운 가정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좋은 생각과 다른 하나는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더욱 나빠져서 노숙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1월말이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키가 작았던 그는 민첩한 움직임이 마치 원숭이와 같았다. 차에 가득 싣고 난 물건들은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다. 그가 확히 지나갈 때마다 휴지통이 비워지고 이리저리 텅클던 박스들이 없어지고 더럽고 너털하던 서울역 지하도는 깨끗하게 정돈됐다. 그는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면 딱도 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곤 했다. 그에게는 굶은 일, 힘든 일이 따로 없었다. 그는 밥 한 그릇을 김치와 넣고 일하다가 그 밥을 빼앗기는 일이 흔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시간에 늦게 와서 밥을 미처 배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다 보니 자기 먹을 밥까지 다 주게 된 것이다. 하루는 청소를 부지런히 마친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사모님! 저 는이 아파트 안쪽에 가야 해요. 보라매병원인데 영동포에 있어요.”

눈이 아프니까에 그의 눈을 자세히 보니 노렇게 고름이 차 있었다. 그는 아픈 눈을 부비던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자꾸 자기 얼굴로 가져가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몸을 잔뜩 움츠리고 건강적인 대답만 했다. 그는 세 번을 연거꾸 그렇게 호소했으나 그 때마다 나는 그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려했다.

조금 있으니까 노숙인 사역을 협력하시는 목사님이 물건을 차에 싣기 위해 지하도에서 올라오셨다. 그러자 그는 목사님에게 가더니 조금 전에 나에게 한 행동 그대로 반박했다. 목사님은 조금의 거리낌이나 주저함 없이 고름이 가득 고인 그의 눈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이 영혼은 도울을 요청할 아무런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주체할 길 없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에게서 뒷걸음치며 멀리 떨어지려 했던 나의 발걸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사람을 도저히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그동안 노숙인들은 더 이상 일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다투기가 힘든 사람들이고 그들은 협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인 나는 당연히 통솔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들과 섞일 수 없다고 간격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키 작은 노숙인을 많은 우리 중에서 두리번거리며 찾았다. 그의 건강해진 눈을 보고 싶어서, 또한 그날 나의 냉정함을 용서받기 위해서다. 나도 이제는 고름이 흐르는 그들의 환부에 주저 없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를 만나던 그가 내 손을 잡아당기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

빈 금식소를 지키며 나는 그 노숙인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우리 교회까지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그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눈병으로 고통하는 그의 기도 부박을 듣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잘 치료해줄 새로운 부로를 부지런히 찾으셨으리라. 아 그 후로 중에 내가 뭘한게 아닐까? 우리를 그렇게 착하게 여가셨다니..... 우리를 그렇게 믿으셨다니..... 그런데 왜, 오늘도 그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글/ 유정옥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사무장 당OO이 자신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박OO가 써 준 간 사실 확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OO은 위협을 느낀 사람처럼 사직서를 급하게 쓰고 소중 한사람들을 그만 두었습니다.
나는 O구청에 사무장이 그만 두었으니 다른 사람을 공채하겠다고 말 하고 사립인, 복지넷,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등에 사무장을 구하는 것을 공시했습니다.

당OO 사직서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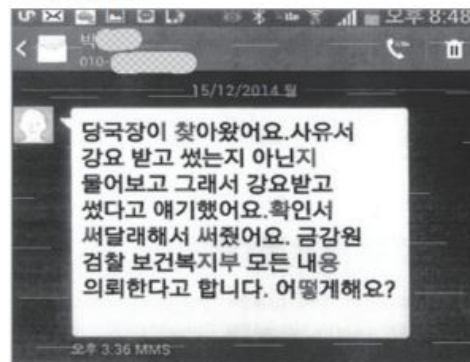
오후 3시 30분쯤 당OO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아침에 쓴 사직서는 무효라면서 다시 복직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미 O구청에 알렸고 사무장 모집 공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사업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달라는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말이 이상해 졌습니다.
"애 너 옛 먹어 볼래. 먼저 털어 안 나오는 사람 봤어!
나는 손과 발이 떨렸습니다.
당OO 사무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려나까 박OO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 써 준 사실 확인서가 내가 박OO를 강요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심장병이면서 12월14일이 주일날 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와서 자기가 써 준 사실 확인서인데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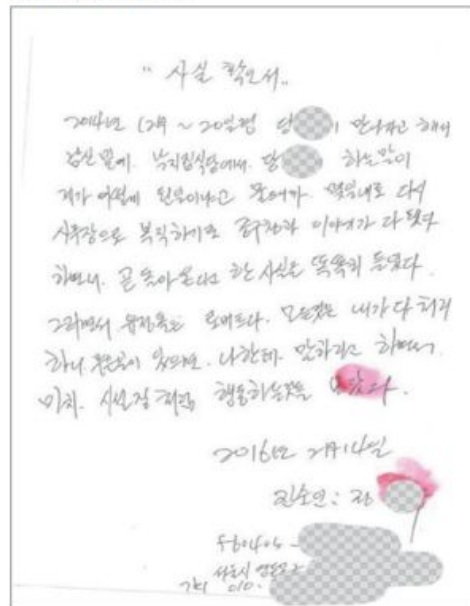
그리고 금감원, 검찰, 보건 복지부에 모든 내용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박OO의 문자메시지



생활인 정OO 사실 확인서



2014년 12월15일 월요일

저녁 6시쯤 당OO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잔뜩 살기를 품고 나에게 박OO가 써 준 사실 확인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박OO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써 준 것인데 강요에 의해 써 주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니 찾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복 사본 없냐고 재차 묻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녹취록(녹취록 내용은 선정적인 이유로 생략합니다)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 지나고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도 당OO이 아내와 함께 사무실로 왔습니다.
당OO 자신과 아내와 내내 박OO가 입을 맞추고 서로 간통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당신은 어디서 그 증거를 발할 수 있냐면서 자신을 사무장으로 복직 시켜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이 터질 것이다. O구청에도 자신이 얘기를 다 해 놓았으니까 복직 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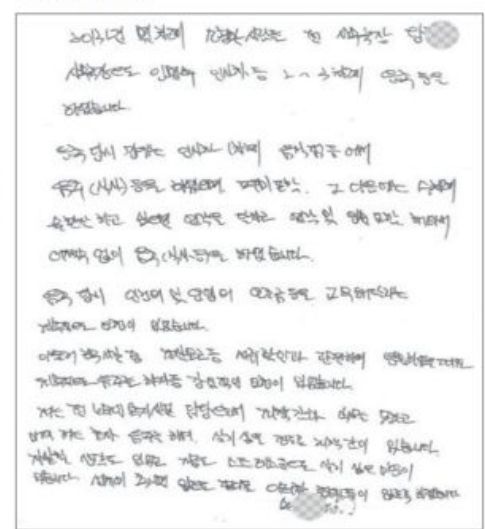
그렇다면 나는 당OO과 박OO가 간통했다는 사실을 증거 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당OO과 박OO가 여성심리 생활인들을 정신병 원동에 전원 시킬 때 둘이서만 가는 것이 떠올라 저장해 놓은 스타렉스 차 블랙박스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당OO과 박OO가 간통한 사실이 파일로 50개나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고 나라에서 지정한 녹취록 회사에 갔습니다.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당OO이 소중한사람들에서 시작하고 나니
O구청 직원들 백OO, 임OO, 손OO 세 사람이 매일 소중한사람들 침터로 찾아 왔습니다.
당OO의 퇴사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절장 유정옥의 책임이라고 지금까지도 당OO을 사무장으로 다시 복직 시키고 사무장 공개 채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옥박질했습니다. 새로 사무장을 채용해도 소용없는 것이 자기들이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당OO의 불륜이 어떻게 발각 난 것이냐며 나를 곤질기게 괴롭혔습니다.
더 나아가 "50세의 당OO과 30세의 미혼의 박OO와 불륜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남자로써의 열마나 큰 능력이다."라며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기에 제가 "박OO가 만약 백OO 계장 남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O구청 세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소중한사람들 침터를 5년 동안 주무관 일을 한 손OO에게 왜 O구청에서는 당OO의 사직을 막고 사무장으로 복귀시키라고 나를 괴롭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당OO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숙자 급식소를 경영하려고 자신의 아내를 영양사 자격증을 취하게 하려고 인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중에 있었습니다.

손OO는 당OO이 O구청 직원들에게 술과 음식, 여자 향응을 했는데 자신을 복직 시키지 않으면 서울시에 우리들을 다 고발한다고 혼자 죽을 수 없다고 하며 O구청 직원들의 목덜미를 쥐고 있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당OO이 목덜미를 쥐고 우리를 죽이려 하니 자신도 요즈음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손OO에게 "그 사실을 글로 써서 나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손OO는 FAX로 사실 확인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손OO 사실 확인서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서울역 광장의 예배

서울역 소중한 사람들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한 지 11년이 되어 갑니다. 본래 어머니가 설교하시고 손○○ 집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체제로 운영되다가, 제가 11년 전부터 예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역에는 많은 노숙인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대략 100~12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2020년 무렵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나라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내려오면서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도 모임에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밥을 나눠주시 말고 도시락으로 나눠주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중한 사람들 교회도 성도가 노숙인일 뿐, 우리는 엄연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해야 할 것만 준수하며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했고, 코로나 때에도 예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간 거리두기를 한 결과, 100~120명 정도 예배 드리던 분들 중 반 이상이 서울역 센터 주차장에서 추위에 떨며 앉아 있어야 했기에 상당수가 예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40~50명 정도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남은 분들은 식사 때까지 주차장에서 1시간을 대기했었습니다.

다시 정상 모임이 시작된 것은 2022년 중반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정상 모임이 시작되었어도 예전처럼 노숙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예배를 견고히 지켜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도 상당수 예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일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지만, 주일에는 대략 30~40명 가량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회복되어 50~60명 선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주에는 족히 100명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듯합니다. 다시 예전 예배 수를 회복한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가 사발면을 나눠주며 예수님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니 우리가 거리에 있는 분들을 찾아 나서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 집사님과 함께 팀이 되어 나가게 된 다른 두 분은 노숙인 분들이었습니다. 그해에 세례받고 6주간 교리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거리에서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 마침 팀이 결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몇 개월을 전도하려 나가시다 그만두게 되고, 손 집사님도 교회를 옮기시게 되면서 거리 전도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 권사님, 송○○ 집사님 등이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에서 봉사와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거리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USB에 성경 봉독 녹음 파일이나 찬송을 틀어두시고 서울역 광장에서 빵을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광장에 함께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예쁘게 전도지도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로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약도도 넣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요약도 넣었습니다. 찬송가 가사도 한 곡 넣어 함께 예배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전하며 서울역 중립동 서울역 센터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울역에 방문하신 분들은 왜 노숙인 분들이 이렇게 깔끔하시냐고 종종 말하시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빠짐없이 나올 만큼 신앙이 투철한 분들이 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들 말쑥한 분들만 오시다가, 이제 드디어 술이 건하게 취한 분도 오시고, 반찬 떨어졌다고 화를 내는 분도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찬송도 부르지 않고 설교도 잘 안듣는 듯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최근 어느 날, 예배가 시작되고 한 10여 분쯤 지났을 때, 한 분이 맨 앞자리에 느긋하게 앉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는 강대상 바로 옆, 큰 거구의 사내가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배 방해된다는 느낌에 속으로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웃도 주섬주섬 벗고, 덩치도 큰데 행동도 느립니다. 그리고 겨우 앉더니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제가 전도한 말을 듣고 겨우 찾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너무나 예배와 이질적인 그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어디 불편하세요?"

"네, 목사님. 근데 목사야?"

"네, 목사입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많이 힘들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아무개 집사님의 대표기도가 끝나는 즈음, 예배 중에 이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내려와 이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이분이 지난 시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에서 꼭 만나주세요."

아까처럼 더 이상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이후 이분이 빠짐없이 매주 예배에 나오십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이제는 지난번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 맨 앞에서 방해하며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예배 후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리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거리에 나앉은 이들, 남루한 옷에 이가 빠진 모습, 술 취해 정신이 혼미해 보이는 이들... 사실 그들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아픈 마음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글 / 이성일 목사



세상적 육아방법에 한계에 부딪힐 때쯤 만난 책 [완벽한 부모는 없다- 폴트립 저] 한 권이 나의 육아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말씀 안에 양육의 모든 답이 들어 있음을 발견한 후로 많은 엄마들에게 이 답을 함께 나누며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도록 안내하는 [소중한 맘] 사역을 하고 있다. 두 아들을 하나님 주신 즐거움으로 양육하고자 애쓰며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에서 남편과 함께 암환우를 섬기고 있다.

이 책은 훈육법을 뛰어넘어, 말씀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다루는 길을 안내합니다. 단순히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은혜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아이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이가 억울함을 토로할 때, 욕심을 부릴 때, 혹은 손해 보지 않으려 고집을 부릴 때, 저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아이와 대화하며 해답을 찾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이고도 생생한 사례들은 독자로 하여금 '육아의 순간'이 곧 '말씀을 전할 기회'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 출판사서평 -

●지은이 : 박선인 ●가격 : 13000원
●구매처 : yes24,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

주한영국대사관 소중한사람들 사역 동참

주한영국대사관은 11월 28일, 12월 5일 두 차례 소중한사람들 노숙인 급식배식 봉사에 참여하였다. 콜린 크룩스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전했고 노숙인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인사말을 전하는 주한영국대사 콜린 크룩스



대사와 함께 온 10여 명의 부대사와 대관원, 외교관들은 음식을 건넬 때마다 어눌한 말투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했고, 노숙인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대답했다. 날씨는 추웠지만 따뜻한 음식과 마음들이 오갔다.

급식 배식 후 청소, 설거지 등 정리를 마친 후 봉사자들은 식사를 함께 한다. 아무래도 국적이 다르니 입맛이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음식이 맛있으며 모두 남김없이 먹었다. 괜히 뿌듯해졌다.

몇 년간 지속해온 소중한 동역의 관계에 감사를 전한다.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섬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렘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쉼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김○미 (4월이용)

몇몇 블로그를 통해 환경과 시설 음식, 프로그램들을 대략 알았으나 실제 와보니 그 소개나 체험의 글들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예배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시며 회개로 인도되어지고 특히 저녁예배후 이어지는 기도회는 정말정말 간절한만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 아니라 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함께 격려하며 섬기며 주님께 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육간에 쇠약해진 암환우들을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극진히 섬겨주시는 목사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모든 환우들께서 강건해지셔서 주님의 용사로 일어나 주님께 왕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순(6월이용)

의정부 목회자임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때 목회자님은 암환우였고 나는 암환우가 아니었는데 반년이 흐르니 내가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믿음없는 저로서는 하루도 보내기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하루에 2번 예배시간인데도 이제는 하루가 짧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세워진 '소중한 사람들' 암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쉼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어진 공간에서 모든 암환자들이 완치판정받고 집으로 갈수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양○자(6월이용)

작년 4월 유방암진단후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가 올해 1월에 끝났습니다. 지쳐버린 육신과 상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를 찾은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보았고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환우들의 밝고 힘찬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아한 기타소리로 시작하는 하루 두 번의 예배와 삶이 녹아난 이성일목사님의 설교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가 되었고 뜨거운 중보기도 시간은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확장소망헌금●

김병식(10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300,000) 임종국(500,000) 이해형(100,000) 이해옥(100,000) 전두희(50,000) 주혜선(10,000)
최영자(200,000) 최정미(150,000)

●목적헌금●

조은래(7,234,904) 손은선(1,000,000) 구현주(1,000,000) 김장후원(200,000) 김계숙(500,000)

●천사헌금●

박선주(1,000,000) 조숙(1,000,000) 이원경(1,000,000) 오분순(1,000,000) 조선영(1,000,000) 공은영(1,000,000) 김혜정(100,000) 각효정(1,000,000)
김영옥(1,000,000) 박정미(1,000,000)

●심일조●

김효숙(100,000) 구현주(400,000) 김홍덕(80,000) 김홍덕(80,000) 박갑진(350,000) 박선인(130,000) 박용범(180,000) 박은미(150,000)
변영미(200,000) 변영미(300,000) 심윤화(260,000) 이상길(300,000) 임종국(500,000) 정은정(500,000) 정소녀(150,000) 조숙(160,000)
최영자(130,000) 최은희(200,000) 추연국(150,000)

●감사헌금●

강금숙(10,000) 강연구(4,000,000) 강신영(500,000) 고선하(30,000) 각효정(380,000) 구민정(20,000) 구교회(600,000) 관점옥(200,000)
권태준(10,000) 김계숙(300,000) 김동일(100,000) 김평식(50,000) 김민수(30,000) 김병식(400,000) 김보영(100,000) 김선미(100,000)
김선민(230,000) 김선영(200,000) 김성희(200,000) 김순금(1,000,000) 김경관(100,000) 김명미(50,000) 김예중(410,000) 김외숙(400,000)
김용문(100,000) 김민숙(10,000) 김주연(200,000) 김진희(100,000) 김태희(300,000) 김현관(500,000) 김현순(40,000) 김혜은(20,000)
김효숙(400,000) 김홍덕(700,000) 남승범(500,000) 노은순권(비들)(337,358) 노현숙(50,000) 류병환(100,000) 목장수(10,000) 문정옥(30,000)
박광숙(100,000) 박봉순(20,000) 박봉희(260,000) 박선영 박진숙(20,000) 박성희(400,000) 박정미(800,000) 박지현(200,000) 박진희(50,000)
박철민(150,000) 박해원(100,000) 방연자(150,000) 방윤순(50,000) 배운경(500,000) 백인미(10,000) 백민미(20,000)
변영미(100,000) 서강일(50,000) 서미순(200,000) 성인숙(200,000) 성해숙(200,000) 손은선(250,000) 송영수(50,000) 신소희(50,000)
신애원(100,000) 신인환(515,000) 신정례(20,000) 신현숙(200,000) 심태영(50,000) 양경미(50,000) 양인자(200,000) 염애식(10,000)
오분순(60,000) 오임순(20,000) 오희순(200,000) 유영희(30,000) 이상길(20,000) 이상숙(20,000) 이상일(400,000) 이상복(50,000)
이옥경(30,000) 이해숙(65,000) 이해연(10,000) 이해옥(410,000) 임경남(10,000) 임경희(50,000) 임선미(50,000) 임종국(1,700,000)
장선숙(10,000) 장정만(10,000) 전대진(50,000) 전상희(100,000) 전선희(30,000) 전영민(330,000) 장경희(170,000) 정동익(80,000)
장숙(50,000) 장미연(40,000) 장태영(30,000) 조옥선(20,000) 자선숙(180,000) 전정희(210,000) 최경희(20,000) 최영자(80,000)
최영희(10,000) 최해경(250,000) 추종석(600,000) 한창식(500,000) 한해경(10,000) 허경순(50,000) 허준(50,000) 황보순(100,000)
황보혜(50,000) 황선옥(100,000) 황순갑(100,000) 황우진(120,000)

●추수감사헌금●

방연자(50,000) 배운경(100,000) 변영미(100,000) 오분순(20,000) 이해옥(100,000) 천정희(50,000) 최영자(70,000) 황우진(20,000)

●기관후원헌금●

CBS레이디싱어즈(300,000) 가락제일교회(100,000) 경주한빛교회(100,000) 계영산업(10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생수교회(300,000) 서울서교회(100,000)
서울중앙교회(100,000) 왕송악곡(500,000) 울산오복가정교회(100,000) 울산오복가정교회(50,000) (주)토말이엔비(100,000) 두월트(254,000)

●정기후원금(CMS)●

김혜영(9월:50,000) 소한태(9월:10,000) 소한태(10월:10,000) 현성원(9월:50,000) 현성원(9월:50,000) 서강일(10월:50,000) 공은영(30,000) 권태준(10,000)
김민정(20,000) 김성자(20,000) 김성희(20,000) 김순금(100,000) 김연배(50,000) 김영신(30,000) 김원돈(30,000) 김운집(30,000)
김유진(10,000) 김연경(50,000) 김조(30,000) 김지영(10,000) 김진영(10,000) 김현정(100,000) 김혜영(50,000) 김해원(30,000)
김효진(20,000) 김효진(100,000) 나일주(100,000) 나지음(15,000) 남승범(30,000) 단선화(50,000) 도주은(100,000) 문희순(10,000)
박경미(20,000) 박성환(50,000) 박연정(10,000) 박연자(20,000) 박완준(50,000) 박윤희(30,000) 박정우(3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영(10,000) 소한태(10,000) 송연숙(50,000) 송필례(30,000) 양윤정(100,000) 오분순(20,000) 오선희(50,000)
유미영(10,000) 윤성복(50,000) 윤인초(10,000) 이금순(50,000) 이다연(10,000) 이미진(10,000) 이상림(100,000) 이소영(30,000)
이승은(30,000) 이은숙(10,000) 이장자(50,000) 이준영(10,000) 이지연(100,000) 이찬선(5,000) 이해경(50,000) 임귀례(1,000,000)
임성숙(30,000) 장미경(20,000) 장선옥(10,000) 장숙아(10,000) 장호형(50,000) 정경희(30,000) 정미선(50,000) 정예은(5,000)
정우찬(30,000) 정은경(20,000) 정현영(50,000) 조남남(20,000) 최성(20,000) 최선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임(20,000) 하정숙(20,000) 하해원(10,000) 허경순(50,000) 홍금주(10,000) 홍덕기(50,000) 황은희(20,000)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청평 힐링센터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소중한사람들 사무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 또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사정에 따라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날짜보다 3~4일 여유있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사무실 031-582-0191 / fax.031-582-0199 / si1224@hanmail.net

청평힐링센터 2025년 11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9,934,904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914,313
천사헌금	8,100,000	자동차 합부금 및 보험료	2,525,178
심일조	6,180,000	식자재구입비	15,119,590
감사헌금	15,146,000	전기요금	3,558,420
CMS헌금	3,715,000	가스요금	793,600
		화재보험료	1,200,000
		안전관리비	198,500
		우편발송비	611,380
		홈페이지/ CMS사용료	297,500
		KT요금	1,063,660
		집기구입비	1,033,237
		급여안전비	17,198,517
금월 수입 합계	43,075,904	지출 총액	44,315,395
전월 이월금	2,414,247		
총 수입 합계	45,490,151	금월 잔액	1,124,756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강정운(4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단선화(150,000) 이해형(100,000) 이해옥(100,000) 전두희(3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최영자(200,000) 최정미(150,000)
2월: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김연자(500,000) 도문식(300,000) 문희자(1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주혜선(30,000) 최정미(200,000)
3월: 감사헌금(158,512)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김명우(1,000,000) 김점숙(50,000) 도문식(300,000) 도주은(1,000,000) 이재희(2,0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최정미(30,000) 최정미(200,000)
4월: 강정운(20,000) 권경희(1,000,000) 김병식(100,000) 김예송(1,000,000) 도문식(300,000) 이재희(2,5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5월: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소재길(100,000) 이정화(1,0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최정미(100,000) 최정미(100,000)
6월: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예수은혜(200,000) 이해형(100,000) 이해형(100,000) 전두희(30,000) 전두희(30,000) 주혜선(10,000)
7월: 강정운(20,000) 김계숙(5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박효정(1,0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1,000,000) 전두희(30,000) 최정미(200,000)
8월: 박성준(100,000)
9월: 강정운(20,000)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도문식(300,000) 이해형(100,000) 이해옥(100,000) 최정미(150,000) 한차용(30,000) 한차용(200,000)
10월: 김연래(1,000,000)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이해옥(100,000) 임종국(3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최정미(150,000)
11월: 김병식(100,000) 이해형(100,000) 이해옥(10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300,000) 전두희(50,000) 주혜선(10,000) 최영자(200,000) 최정미(150,000)

* 11월말 현재 총, 177,508,512원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5년 11월 씨앗헌금 후원 : 김병식(10,000) 소중한사람들교회(200,000) 이상숙(20,000) 이만석(10,000) 이순미(50,000) 한종석(200,000)

2025년 11월 소나무헌금 지출: 남○범(416,000) 신○환(32,640)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쉼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향,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업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에 주심으로 계속 동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10월 가입자 명단 (10명)

599 박선주 600 조숙 601 이명경 602 오보은 603 조선영 604 김은영 605 김혜정 606 박희정 607 김영옥 608 박정미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명옥	2 최희정	3 최희정	4 김희정	5 이명옥	6 김수영	7 김수영	8 이명옥	9 조주영	10 김수영	11 박희정	12 김수영	13 조선영	14 김수영
15 이명옥	16 최희정	17 최희정	18 김희정	19 이명옥	20 김수영	21 김수영	22 이명옥	23 조주영	24 김수영	25 박희정	26 김수영	27 조선영	28 김수영
29 김수영	30 최희정	31 최희정	32 김희정	33 이명옥	34 김수영	35 김수영	36 이명옥	37 조주영	38 김수영	39 박희정	40 김수영	41 조선영	42 김수영
43 김수영	44 최희정	45 최희정	46 김희정	47 이명옥	48 김수영	49 김수영	50 이명옥	51 조주영	52 김수영	53 박희정	54 김수영	55 조선영	56 김수영
57 김수영	58 최희정	59 최희정	60 김희정	61 이명옥	62 김수영	63 김수영	64 이명옥	65 조주영	66 김수영	67 박희정	68 김수영	69 조선영	70 김수영
71 김수영	72 최희정	73 최희정	74 김희정	75 이명옥	76 김수영	77 김수영	78 이명옥	79 조주영	80 김수영	81 박희정	82 김수영	83 조선영	84 김수영
85 김수영	86 최희정	87 최희정	88 김희정	89 이명옥	90 김수영	91 김수영	92 이명옥	93 조주영	94 김수영	95 박희정	96 김수영	97 조선영	98 김수영
99 김수영	100 최희정	101 최희정	102 김희정	103 이명옥	104 김수영	105 김수영	106 이명옥	107 조주영	108 김수영	109 박희정	110 김수영	111 조선영	112 김수영
113 김수영	114 최희정	115 최희정	116 김희정	117 이명옥	118 김수영	119 김수영	120 이명옥	121 조주영	122 김수영	123 박희정	124 김수영	125 조선영	126 김수영
127 김수영	128 최희정	129 최희정	130 김희정	131 이명옥	132 김수영	133 김수영	134 이명옥	135 조주영	136 김수영	137 박희정	138 김수영	139 조선영	140 김수영
141 김수영	142 최희정	143 최희정	144 김희정	145 이명옥	146 김수영	147 김수영	148 이명옥	149 조주영	150 김수영	151 박희정	152 김수영	153 조선영	154 김수영
155 김수영	156 최희정	157 최희정	158 김희정	159 이명옥	160 김수영	161 김수영	162 이명옥	163 조주영	164 김수영	165 박희정	166 김수영	167 조선영	168 김수영
169 김수영	170 최희정	171 최희정	172 김희정	173 이명옥	174 김수영	175 김수영	176 이명옥	177 조주영	178 김수영	179 박희정	180 김수영	181 조선영	182 김수영
183 김수영	184 최희정	185 최희정	186 김희정	187 이명옥	188 김수영	189 김수영	190 이명옥	191 조주영	192 김수영	193 박희정	194 김수영	195 조선영	196 김수영
197 김수영	198 최희정	199 최희정	200 김희정	201 이명옥	202 김수영	203 김수영	204 이명옥	205 조주영	206 김수영	207 박희정	208 김수영	209 조선영	210 김수영
211 김수영	212 최희정	213 최희정	214 김희정	215 이명옥	216 김수영	217 김수영	218 이명옥	219 조주영	220 김수영	221 박희정	222 김수영	223 조선영	224 김수영
225 김수영	226 최희정	227 최희정	228 김희정	229 이명옥	230 김수영	231 김수영	232 이명옥	233 조주영	234 김수영	235 박희정	236 김수영	237 조선영	238 김수영
239 김수영	240 최희정	241 최희정	242 김희정	243 이명옥	244 김수영	245 김수영	246 이명옥	247 조주영	248 김수영	249 박희정	250 김수영	251 조선영	252 김수영
253 김수영	254 최희정	255 최희정	256 김희정	257 이명옥	258 김수영	259 김수영	260 이명옥	261 조주영	262 김수영	263 박희정	264 김수영	265 조선영	266 김수영
267 김수영	268 최희정	269 최희정	270 김희정	271 이명옥	272 김수영	273 김수영	274 이명옥	275 조주영	276 김수영	277 박희정	278 김수영	279 조선영	280 김수영
281 김수영	282 최희정	283 최희정	284 김희정	285 이명옥	286 김수영	287 김수영	288 이명옥	289 조주영	290 김수영	291 박희정	292 김수영	293 조선영	294 김수영
295 김수영	296 최희정	297 최희정	298 김희정	299 이명옥	300 김수영	301 김수영	302 이명옥	303 조주영	304 김수영	305 박희정	306 김수영	307 조선영	308 김수영
309 김수영	310 최희정	311 최희정	312 김희정	313 이명옥	314 김수영	315 김수영	316 이명옥	317 조주영	318 김수영	319 박희정	320 김수영	321 조선영	322 김수영
323 김수영	324 최희정	325 최희정	326 김희정	327 이명옥	328 김수영	329 김수영	330 이명옥	331 조주영	332 김수영	333 박희정	334 김수영	335 조선영	336 김수영
337 김수영	338 최희정	339 최희정	340 김희정	341 이명옥	342 김수영	343 김수영	344 이명옥	345 조주영	346 김수영	347 박희정	348 김수영	349 조선영	350 김수영
351 김수영	352 최희정	353 최희정	354 김희정	355 이명옥	356 김수영	357 김수영	358 이명옥	359 조주영	360 김수영	361 박희정	362 김수영	363 조선영	364 김수영
365 김수영	366 최희정	367 최희정	368 김희정	369 이명옥	370 김수영	371 김수영	372 이명옥	373 조주영	374 김수영	375 박희정	376 김수영	377 조선영	378 김수영
379 김수영	380 최희정	381 최희정	382 김희정	383 이명옥	384 김수영	385 김수영	386 이명옥	387 조주영	388 김수영	389 박희정	390 김수영	391 조선영	392 김수영
393 김수영	394 최희정	395 최희정	396 김희정	397 이명옥	398 김수영	399 김수영	400 이명옥	401 조주영	402 김수영	403 박희정	404 김수영	405 조선영	406 김수영
407 김수영	408 최희정	409 최희정	410 김희정	411 이명옥	412 김수영	413 김수영	414 이명옥	415 조주영	416 김수영	417 박희정	418 김수영	419 조선영	420 김수영
421 김수영	422 최희정	423 최희정	424 김희정	425 이명옥	426 김수영	427 김수영	428 이명옥	429 조주영	430 김수영	431 박희정	432 김수영	433 조선영	434 김수영
435 김수영	436 최희정	437 최희정	438 김희정	439 이명옥	440 김수영	441 김수영	442 이명옥	443 조주영	444 김수영	445 박희정	446 김수영	447 조선영	448 김수영
449 김수영	450 최희정	451 최희정	452 김희정	453 이명옥	454 김수영	455 김수영	456 이명옥	457 조주영	458 김수영	459 박희정	460 김수영	461 조선영	462 김수영
463 김수영	464 최희정	465 최희정	466 김희정	467 이명옥	468 김수영	469 김수영	470 이명옥	471 조주영	472 김수영	473 박희정	474 김수영	475 조선영	476 김수영
477 김수영	478 최희정	479 최희정	480 김희정	481 이명옥	482 김수영	483 김수영	484 이명옥	485 조주영	486 김수영	487 박희정	488 김수영	489 조선영	490 김수영
491 김수영	492 최희정	493 최희정	494 김희정	495 이명옥	496 김수영	497 김수영	498 이명옥	499 조주영	500 김수영	501 박희정	502 김수영	503 조선영	504 김수영
505 김수영	506 최희정	507 최희정	508 김희정	509 이명옥	510 김수영	511 김수영	512 이명옥	513 조주영	514 김수영	515 박희정	516 김수영	517 조선영	518 김수영
519 김수영	520 최희정	521 최희정	522 김희정	523 이명옥	524 김수영	525 김수영	526 이명옥	527 조주영	528 김수영	529 박희정	530 김수영	531 조선영	532 김수영
533 김수영	534 최희정	535 최희정	536 김희정	537 이명옥	538 김수영	539 김수영	540 이명옥	541 조주영	542 김수영	543 박희정	544 김수영	545 조선영	546 김수영
547 김수영	548 최희정	549 최희정	550 김희정	551 이명옥	552 김수영	553 김수영	554 이명옥	555 조주영	556 김수영	557 박희정	558 김수영	559 조선영	560 김수영
561 김수영	562 최희정	563 최희정	564 김희정	565 이명옥	566 김수영	567 김수영	568 이명옥	569 조주영	570 김수영	571 박희정	572 김수영	573 조선영	574 김수영
575 김수영	576 최희정	577 최희정	578 김희정	579 이명옥	580 김수영	581 김수영	582 이명옥	583 조주영	584 김수영	585 박희정	586 김수영	587 조선영	588 김수영
589 김수영	590 최희정	591 최희정	592 김희정	593 이명옥	594 김수영	595 김수영	596 이명옥	597 조주영	598 김수영	599 박희정	600 김수영	601 조선영	602 김수영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싸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31-582-0191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청평암환우 힐링센터



▲ 김장



▲ 김장



▲ 김장



▲ 김장



▲ 등산



▲ 매일 아침 예배



▲ 매일 아침 예배



▲ 소모임



▲ 핑클링



▲ 핑클링



▲ 핑클링 소모임



▲ 탁구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 구현주 사과 ▲ 김병식 과자 ▲ 김매옥 김밥 ▲ 김익숙 반식 ▲ 김진영 꿀 ▲ 김진영 떡 ▲ 김용덕 공생미 ▲ 박철민 떡 ▲ 송영수 고구마 ▲ 육준기 송편 ▲ 이상길 계란 ▲ 임종국 호박 ▲ 정동익 수박 ▲ 정소녀 키위 ▲ 추중석 김밥

청평 힐링센터 암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1. 배O경(매양47) - 1상 신약 임상연구 참여하고 있는데 오심, 구내림, 피부발진 가려움, 입은 주위 피부 짓무름 부작용 치유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2. 임O국(파죽암47) - 11월 CT, FCT 검사에서 좋은 결과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전립선암, 위암, 외투세포종양 회복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3. 이O진(난소암47, 림프전이) - 영과육이 고맙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요양원에 계시는 뇌경색 중증장애인 염마의 굶고 내려앉은 척추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언니의 건강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4. 구O희(유방암,간배전) - 췌장도 2차전 분차상 있습니다. 손 발이 통증, 피부 벗겨짐, 물집이 생김, 무기력함, 울렁거림의 부작용을 치유하여 주시고 잘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 성O숙(매양) - 폐 수술 후 호흡이 어렵습니다. 호흡이 잘 되어서 대화와 운동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6. 강O영(삼중종양 유방암, 뇌전) - 11/28일부터 경구용 항암시작합니다. 손 발 벗겨지고, 구토등의 후유증이 일어나고 경구용 항암이 잘 맞아서 암세포들이 모두 사멸되기를 기도합니다.
7. 김O숙(삼중종양 유방암, 폐전) - 12/12일 복부, 흉부 CT 검사 때 좋은 결과 들기를 기도하며 치유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8. 서O순(유방암) - 3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모든 암세포가 몸에서 사멸되어 완치되기를 소망합니다.
9. 황O진(유방암,2전) - 암발 힐프부종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높아져 간 전이암 완전해 되도록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고쳐 주시며, 자녀들이 장성하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자리를 강건히 지켜 내도록 하옵소서
10. 이O옥(유방암,홍산) - 피부림프종으로 일주일째 세 번씩 광선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저의 영혼육에 늘 임하시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 살게 하옵소서
11. 신O원(간암) -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인들 교회사역을 하면서 15년 전 간암이 몰래 초에 재발하여 6월11일 간이식을 하였습니다. 간이식 수술 후 회복중에 항암제에 암이 전이된 것을 알게 되어 시술하고 한때 항암을 하면서 한센인들의 고통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간암이 회복되어 다시 그곳에서 상고 싶습니다.
12. 추O석(방광암,신장암,폐,요로세포암전) - 자비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암을 이길 힘을 주시옵고 좁은 길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13. 박O미(대전이,간암) - 치료의 모든 과정에 임하셔서 완치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30년의 세월을 더 하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박O희(자궁암,종양4기) - 종양자살에서 한 달간 위기를 극복하고 항암중에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이 아닌 면역항암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 오O순(대장암,간전) - 9/22일 대장암 수술 후 항암을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항암을 잘 마치길 기도합니다.
16. 김O일(매양) - 1년6개월 동안 항암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한 번 쉬어 갑니다. 전이된 암들이 모두 소멸되어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7. 김O덕(방광암,복막,골반전) - 항상 형태, 자매님들을 섬기는 자세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암으로 인한 고통, 환난의 시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잘 알고 내 자신이 좀 더 나아가고 성숙 되 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8. 김O금(담낭암) -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전이된 암들이 소멸되고 새로운 표적 항암으로 담낭암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19. 김O숙(대장암) - 5차 항암치료 중입니다. 8차 항암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 송O수(위암) - 11/4일 CT 결과 놀지도 놀지도 않고 그대로 합니다. 항암하는 동안 부작용 없고 다음 검사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21. 김O권(뇌종양) - 뇌종양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22. 조O(매양) - 수술받은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되어 통증과 기침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다른 곳으로 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3. 박O현(위암) - 11월 CT 결과 담낭은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치료에도 좋은 결과 들기를 기도합니다.
24. 정O순(유방암) - 12/15일 PET-CT 찍고 22일 결과 보는데 내상 생기고 없고 약 그대로 더 쓰길 원하며 오장육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제 기능을 잘하게 하옵소서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환자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생명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8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8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1:50~3:40

소중환자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85회가 되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11월에 강해 중인 사무엘상 9-11장 말씀을 통해 기도했다. 소중환자사람들 사역 공동의 기도 개인 요청기도를 함께 중보하며, 아픈 자들의 치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환자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중보기도제목

1. 소중환자사람들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환자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역,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2. 소중환자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환자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과,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베트남

4. 치유 - 신형진, 최유은, 김정신, 정은영, 황우진, 이혜옥, 배운경, 김홍덕, 김순금, 임종국, 신인환, 이희진, 추종석, 구숙희, 김효희, 박성희, 오분순, 성안숙, 송영수, 강신영, 김동일, 김현권, 박지현, 조숙, 서미숙, 김계숙, 정종순 임소혜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5.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래, 김현중,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희,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야, 이순조, 김지현,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이병설,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규, 조규철, 이병설, 구현주, 전상희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신형진님 근육수축증 치료 신약 노바티스 Itrisma 가격이 내려가고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을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4935-2445<문자로>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도자들은 노숙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적게나마 나누어 드리고,
노숙인들은 감사로 화답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



▲ 강동은누리교회 봉사 후 식사



▲ 개인봉사자 식사



▲ 개인봉사자



▲ 모래내교회



▲ 서빙고은누리교회



▲ 식사전경



▲ 여클레시아



▲ 영국대사 클린 크릭스 인사



▲ 영국대사관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이박회37기



▲ 이박회37기



▲ 이화유치원



▲ 조이어스교회 봉사 후 식사



▲ 조이폴교회



▲ 함께울려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1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70-10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이대부초성경동독팀(4.11.18.25일), 여클레시아(8일), 조이어스교회(11일), 함께울려(15일), 이박회37기(17일), 서빙고은누리교회(18일), 이화유치원(20일), 강동은누리교회(21일), 모래내교회(22일), 영국대사관(28일), 조이폴교회(29일)가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권경희, 김영옥, 박봉희, 박진희, 송경옥, 손수정, 송홍렬, 심지현, 이소영, 이향자, 임윤엽, 전두희, 조희진, 최경희, 최금연, 황보혜, 한현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지영, 허정만, 한송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윤화, 최영화..개인 봉사자들이 주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주희, 김명옥, 강원봉, 김정미, 송기승, 이상훈, 최영화)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중,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이성용, 주일 이성일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초성경통독팀과 소중한찬양단, 박종수목사님, 이윤수전도사님
- * 소식지 우편물 작업 지원 봉사를 해주신 이대부초성경통독팀
- * 10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 22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
-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팀과 개인봉사들
- * 겨울용품 구디백을 준비해주시고 나눠주신 윤수연님
- * 서울역 전도를 위해 부식물 나눔을 준비해주신 개인 봉사자

모두 감사합니다



▲ 이대부초성경통독팀 우편물작업지원



▲ 우편물 작업 지원



▲ 윤수연 겨울용품 구디백 후원물 나눔



▲ 선한목자병원 무료진료



▲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 김기래, 신동재 나눔



▲ 소중한찬양단



▲ 부식물 나눔 준비 봉사



▲ 이미희 봉사

- * 서울역 전도를 위한 커피를 후원하신 김명옥님 * 음식/부식을 준비해 오신 에클레시아, 조이어스교회
- * 파프리카를 후원하신 이소영님 * 쌀을 보내주신 모래내교회, 강원봉, 이창호님
- * 돼지고기를 후원해 주신 (주)노아 * 소고기를 후원해 주신 푸드뱅크, 하나프라이
- * 겨울용품 구디백을 후원해주신 윤수연님 * 과일을 후원해주신 황기용, 정은영님, 성은교회, 중림교회
- * 계란을 보내주신 김선영님 * 떡을 보내주신 윤화님 * 김치를 후원하신 소망교회
- * 여성용 화장품 2박스를 후원하신 무명님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11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11/1	김명옥	커피	6박스	11/2~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3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2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4	황기용	쌀	4박스	11/4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5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6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6	윤수연	겨울용품 구디백	80개	11/6	나눔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7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9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8	에클레시아	바나나	4박스	11/8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10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11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11	조이어스교회	바나나	4박스	11/11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11	푸드뱅크	갈비탕	60박스	11/12~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12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13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13	이소영	파프리카	2박스	11/14~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14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23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15	김선영	계란	15판	11/16~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16	성은교회	추수감사절 과일	10박스	11/17~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17	중림교회	추수감사절 과일	7박스	11/18~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17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18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19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20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21	정은영	쌀	4박스	11/21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21	무명	화장품	2박스	11/22~	나눔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21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24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22	모래내교회	쌀	100kg	11/23~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23	소망교회	김치	20박스	11/24~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24	강원봉	쌀	7포	11/25~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24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25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26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27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27	이창호	쌀	1포	11/28~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27	(주)노아	돼지고기	10박스	11/28~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11/28	푸드뱅크	빵/부식	5박스	11/30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28	하나프라이	소고기	10박스	11/29~	급식	소중환자사랑교회 노숙인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러시아, 중국, 북한 선교편지

김요셉 북한 선교사님은 꽤 수송 등 개인 건강 상으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녔던 선교사님들과 연결하여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녔던 선교사님은 북한을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중국인, 조선족, 탈북민, 북한유학생을 위한 선교를 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상황이 바뀌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다녔던 선교사님도 중국, 북한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인과 중국인, 탈북민, 북한유학생을 위한 사역 중입니다. 더 나아가 전도 받은 북한유학생을 통한 북한 현지 선교도 기도 중입니다.

6월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으로 변화들이 보입니다.

감사
1. 성경을 읽는 이들(제이는 안드레이, 지타), 전도 중인 이들(마만, 안드레이의 친구, 반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율가부부와 함께 "The King of kings"를 관람했습니다. 함께 왕들의 왕이신 예수 양화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율가와 앤드류, 앤드류가 영씨의 재물을 들고 있습니다. MP3를 내장한 라디오를 통한 언어 도움과 MP3에 있는 복음적 내용의 나눔이 가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탈북민들 복음 접촉을 위한 일에 이들 부부의 동역을 위해 매우 화요일 저녁 율가 집에서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2. 베드로(조선족)는 탈북민들에게 자신이 맡은 일(전도)을 하정 주려 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충성되게 하사 북한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3. 벨라리의 제이슨과 안드레이(지타와 브리바) 30살의 제이슨과 60대의 안드레이가 그룹으로 묶여서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살았고 능력있는 장제기의 말씀이 역사하사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돈과 시간이 있는 제이슨에게 북한여행을 두 번 제안했는데 탈북 뚜껑이지만 정보를 수집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행 갈게 지금 달려 있다고" 러시아인들한테 여행이 열렸는데,
지타와 브리바를 주일 그룹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로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영어와 불어를 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로 만나길 수 있도록, 그들의 북한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된 형제들로 자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간구
지하가 떠나면 H도시에서라도 많은 가정 불침 사역자들이 수감되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힌 것을 대비하며 사역하시는 분들과 옥고를 치르고 있는 사역자들과 가족들, 사역자의 부재 가운데 애매를 지킴이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 해 주십시오. 또한 이곳 러시아에서도 선한 일을 하다가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이 올 해에도 7월 중순 벨나라 형제들의 이 곳으로의 북한 선교 여행을 위해 중보 해 주십시오.
1. 외국인들도 모두 각자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 은행에 생체인식을 하여야 휴대돈을 개통, 사용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든 나라가 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외국인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선생님의 나눔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생생하게 곁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2.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며, 북한 현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이며 확실한 지시를 충심으로 따르게 하소서.
3. 함께 일 할 다국적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고, 아름다운 팀워크로 일할 팀이 형성되게 하소서.
4. 로빈아나 소피아의 패업을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북한을 위한 권선인으로 살며 동역하게 하소서.
5.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들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1. 아직도 요원한 지체들의 언어의 진보와 작(3년) 임시 거류증을 얻게 하소서

8월
우리는 지난 7월 10-15일 동아시아의 지체들과 단기여행을 마치고 17일에 일시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18일에 V도시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의 아내가 뇌출혈로 코마상태에 있다는 긴급기도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그 사모님을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V도시에서 단기선교를 마치고 다시 만날 것을 인신하여 작별했는데, 그것이 생전의 마지막 작별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선교사님과 여인 두 딸(중3, 중1)을 생각하며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 안에서 수고나 헛되지 않다는 말씀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도록 기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님의 우리를 위한 믿음의 기도, 후원의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1. 7월 10-15일 동아시아의 임마누엘빌딩 6명의 지체들이 8도시에서 단기 여행의 시간에 그들에게 왜 타문화권의 지체들이 우리 사역에 필요함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팀이 세 곳에서 업무를 위해서, 가족의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국하는 북한분들을 접촉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분들과의 교제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8국에서 북한선교 청년 헌신자들을 영육하시는 이 목사님과 팀사역에 대한 온라인미팅을 하게 하시고, 8국의 청년 4-6명이 내년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도록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례에 선교단체들간의 협력을 이루시고 북한 유학생들을 복음접촉과 양육으로 북한에 재파송하는 귀한 사역이 극대화되도록 중보해주시고
3. 중국 사역자들의 모임에서 장간 방문하여 충성된 지체들과의 교제를 가질수있음에 감사하고, 오늘의 미약한 연례에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주시길 소망하는 바 확실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4. 브리바가 8월초에 고국을 방문케 하신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약혼자와의 교제가 온 해 가운데 견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러시아행 비자를 순직하게 연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구의 기도
1.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 생활 가운데 북한유학생과 접촉 가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을 붙여 주시고, 변화는 장제 가운데 Inland 북한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을 주소서.
2. 함께 일 할 다국적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고, 아름다운 팀워크로 일할 팀이 형성되게 하소서.
3. 로빈아나 소피아의 패업을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북한을 위한 권선인으로 살며 동역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신변 문제가 새해가 되기 전에 해결되게 하소서.
4. 9월 1일 다시 러시아로 출국 예정입니다. 동역자들과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미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길 간구합니다.
5. 북한을 영육간에 축복할 사업의 문을 여소서. 관련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대환에 열매가 있게 하소서.

9월
러시아에 돌아오는 길에 기차역에서 7명의 북한 동포분들이 바로 저희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서 서서 전광판의 열차 안내를 보며 자신들이 갈 기차에 관해 얘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저희와 같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는 분들이었습니다. 다른 역에서는 우리 도시까지 가는 다른 세분의 북한동포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수도 없었고, 접근도 제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석 장을 보던 여제는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안 받고 급히 가는 북한분을 가게 주인의 부탁으로 등을 쳐서 거스름돈을 받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곤산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인 유학생과 러시아인에게 목제 계원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관해 전도 편지를 썼고, 나비 목걸이와 십자가, 개관을 가지고 북한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시각 자료들은 그가 흥미롭게 듣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그는 영접 기도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복음을 가깝게 대하는 그가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그의 거절은 한편으로 복음을 거절할 지도 있듯이 누군가 예비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누가 언제 받아들일지 모르기에 담대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빌리도록 팀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간구의 기도
1. 이 도시에 온다면 100명의 북한유학생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전에 행방에서 북한인들에게 라이를 가르쳤던, 지금도 태도시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라이를 가르치는 교수님과 차를 마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만남으로 예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반친구들, 유학생 소개업을 하는 중국인 부부, 적년 동공생들을 주석을 계기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만남들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준비된 자들을 얻게 하소서.
3. 북한 동포들을 접촉 가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국적 동역자들을 얻게 하시고 Inland 북한사역이 길이 열리고, 나아만 장군과 가생 라합과 같은 자들을 만나게 하옵시며, 북한을 영육간에 축복할 사업의 문을 열어주소서.

- 다녔다와 그레이스 드림 -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마24:45) 말씀에 반응하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은 출지만 따듯하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처럼 마음도 춥고 외롭고 때론 외롭고 쓸쓸한 계절입니다만
후원자님들께서 마음을 나눠주고 소외받는 자들이 외롭지 않게 머물러주셔서, 그 온기가 전해져서 참 따듯합니다.

후원품으로 보내주신 겨울용품들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한 노숙인 할아버지가 후원품 나눔 때 늦게 오셔서 자기는 하나밖에 못 받았다고 걱정하십니다. 원래 하나씩이라고 하나씩 몇쪽은 듯 웃으십니다.

이번 달에도 하나프라이임, (주)노아, 푸드뱅크에서 맛있는 고기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청평힐링센터에서 개인봉사자들과 CBS레이디스싱어즈가 김장도 했습니다. 다들 손맛이 좋으신지 김치가 아주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따뜻한 고기와 시원한 김치를 같이 먹으니 밥이 모자랍니다. 더 달라는 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따라 밥이 모자라서 봉사자들 먹을 밥을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십일조로, 목적헌금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관헌금, 정기후원(CMS), 천사후원헌금, 소나무헌금, 확장헌금, 교회헌금, 고아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소식지에 기록하며 다시금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고 직접 갚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시각각 변화는 외국의 사정을 주시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할 때에 전해주고자 늘 살피고 있습니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 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함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을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형진, 최유은, 김정신, 정은영, 황우진, 이해옥, 배윤경, 김흥덕, 김순금, 임종국, 신인환, 이희진, 추종석, 구숙희, 김효숙, 박성희, 오분순, 성인숙, 송영수, 강신영, 김동일, 김현권, 박정민, 박지현, 조숙, 서미숙, 김계숙, 정종순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래, 김현충, 최희은, 이해숙, 김민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민,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재원, 장영희, 김하아,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숙,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이병설,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규, 조규철, 이병설, 구현주, 전상희 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으셨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1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본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드림

2025년 11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십일조 헌금●

강덕희(250,000)	강덕희(280,000)	강성희(200,000)	강원봉(400,000)	강지현(80,000)	구명신(100,000)
구현주(1,000,000)	김연진(1,000,000)	김영림(100,000)	김영선(50,000)	김영진,손미나(2,000,000)	김용수,송연숙(350,000)
나은신(300,000)	노아(1,000,000)	문영숙(200,000)	박수현(200,000)	박인혜(300,000)	박인혜(250,000)
살롬살롬(200,000)	상현영(700,000)	신형진(500,000)	안유진(360,000)	유광현(380,000)	유애스더(220,000)
유영재(350,000)	윤원석(200,000)	이교은(280,000)	이교은(590,000)	이상용,이한나(550,000)	이은주(1,000,000)
이인수(20,000,000)	이주희(270,000)	이태희(50,000)	임나리(650,000)	임현국(340,000)	장종숙(150,000)
정경희(250,000)	조미영(100,000)	최영희(100,000)	최진옥(200,000)	한은숙(400,000)	

●추수감사절헌금●

강덕희(100,000)	강원봉(1,000,000)	기정아(50,000)	김명옥(100,000)	김상근(10,000)	김용수(200,000)
박선인(50,000)	서성한(10,000)	송기승(30,000)	이태희(20,000)	이황희(20,000)	임맹자(100,000)
장종숙(50,000)	최영희(100,000)				

●개인 감사헌금●

2025년주님개갑사(50,000)	강대윤(10,000)	강덕희(20,000)	강덕희(20,000)	강원봉(10,000)	강지현(10,000)
강원봉(100,000)	강원봉(100,000)	강윤옥(10,000)	강지현(10,000)	권은아(300,000)	권정연(100,000)
급식후원(10,000)	기정아(30,000)	기정아(30,000)	김갑희(40,000)	김갑희(50,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남이(150,000)	김동민(10,000)	김명옥(20,000)	김명옥(20,000)	김명옥(20,000)
김미선(50,000)	김미영(20,000)	김미정(30,000)	김병식(20,000)	김상근(10,000)	김상근(13,000)
김상근(10,000)	김성희(30,000)	김순옥(100,000)	김영선(10,000)	김영진(50,000)	김용수,송연숙(200,000)
김정훈(10,000)	김종영(100,000)	김지미(20,000)	김태세(10,000)	김태세(10,000)	김태세(10,000)
김태세(10,000)	김태세(10,000)	김태희(50,000)	김하영(100,000)	김행심(10,000)	김현희(30,000)
김희정(50,000)	김갑희(120,000)	나미정(100,000)	나종숙(40,000)	노원국(30,000)	무명(20,000)
무명(202,000)	무명(109,000)	무명(171,000)	박동준(10,000)	박민희(110,000)	박선인(10,000)
박선인(10,000)	박선인(10,000)	박선인(10,000)	박세준(50,000)	박인혜(10,000)	박인혜(10,000)
박인혜(10,000)	박인혜(10,000)	박인혜(10,000)	박정애(30,000)	박정환(20,000)	박지현(10,000)
박진희(100,000)	박진희(14,000)	배희영(10,000)	변경자(20,000)	서성한(5,000)	성명숙,이경민(50,000)
송계순(30,000)	송규화(50,000)	송기승(150,000)	송기승(20,000)	송기승(20,000)	송기승(20,000)
송은혜(10,000)	심요엘(10,000)	심홍보(2,000)	심홍보(2,000)	심홍보(2,000)	심홍보(2,000)
심홍보(2,000)	양복길(130,000)	오경남(20,000)	오신향(100,000)	오지석(100,000)	유서영(100,000)
유애선(10,000)	유재학(130,000)	유정옥(10,000)	윤재운(10,000)	윤재운(10,000)	이기형(10,000)
이덕선(50,000)	이문숙(80,000)	이미미(100,000)	이선아(100,000)	이상용,이한나(750,000)	이상혜(5,000)
이연옥(10,000)	이영주(50,000)	이용섭(50,000)	이용남(30,000)	이원옥(100,000)	이윤정(100,000)
이은영(50,000)	이인영(30,000)	이재성(50,000)	이정선(100,000)	이주희(10,000)	이주희(10,000)
이주희(10,000)	이주희(10,000)	이철호(10,000)	이지은(10,000)	이태희(10,000)	이태희(10,000)
이태희(10,000)	이태희(10,000)	이향재(50,000)	이현경(60,000)	이형식(50,000)	이형식(60,000)
이황희(10,000)	이희진(100,000)	이희진(100,000)	이희진(100,000)	이희진(100,000)	임운업(100,000)
임운업(10,000)	임운업(10,000)	임운업(20,000)	임운업(50,000)	임운업(100,000)	장광목,장자민(50,000)
장관숙(100,000)	장종숙(10,000)	장종숙(10,000)	장지호(50,000)	장지호(50,000)	장지호(50,000)
전혜영(10,000)	정경희(30,000)	정경희(30,000)	정매숙(20,000)	정운(50,000)	정주연(100,000)
정현학(10,000)	정태현(10,000)	조성애(50,000)	조을남(10,000)	조정희(10,000)	조진영(50,000)
주님개갑사(10,000)	주님개갑사(10,000)	주님개갑사(10,000)	주혜선(10,000)	최성은(10,000)	최영희(10,000)
최영희(10,000)	최영희(10,000)	최영희(10,000)	최영희(10,000)	최진복(20,000)	하태운(30,000)
한경숙(10,000)	한송희(100,000)	한애스더(100,000)	허동욱(10,000)	홍복실(100,000)	황부영(50,000)

●교회 감사헌금●

(가집)별명교회(100,000) (가집)선한목자교회(100,000) (가집)안영길교회(200,000) (가집)식도성결교회(50,000) (가집)식도성결교회(50,000)
(가집)아현성결교회(100,000) (예장)경주제일교회(200,000) (예장)문호교회(100,000) (예장)영락교회(300,000) (예장)하나로교회(100,000)

(2025년 11월 01일 ~ 11월 30일까지)

기쁜우리교회(100,000) 배아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삼성교회6여선교회(100,000) 시민의교회(1,000,000) 예병교회(50,000)
예수사랑교회(30,000) 은평교회(20,000) 은혜의교회(50,000) 주찬양교회(5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기관 감사헌금●

(주)컨피테크(100,000) 갓피플웨딩(50,000) 계영산업(50,000) 김빛어행사(100,000) 로고스타디카페(20,000) 마라나타(30,000)
마라나타(200,000) 마라나타(200,000) 사랑의센터(50,000) 엔씨마과학수학학원(100,000) 온누리약국복지회(300,000) 주한영국대사관(1,000,000)
창세애스엔티(50,000)

●미얀마고아 선교헌금●

(주)GBP(50,000) 광상미(40,000) 김명자(10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천성(40,000) 안성훈(송영목)(40,000) 유경미(40,000) 윤혜경(40,000)
이상자(40,000) 이상자(40,000) 이용목(40,000) 이용목(40,000) 이해란(40,000) 정영애(40,000)
정현주(40,000) 정현주(40,000) 주영훈(40,000) 최선애(40,000) 최선애(40,000)

●중국고아 선교헌금●

윤혜경(40,000) 이해란(40,000) 조춘식(40,000)

●멕시코고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해란(40,000)

●북한고아 선교헌금●

(주)GBP(50,000) 강알화(40,000) 강현미(40,000) 권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미원(40,000)
김소영(5,000) 석영란(20,000) 안미라(4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복자(100,000) 이수미(50,000) 이해란(40,000) 정미주(40,000) 한상준(10,000) 함수아(40,000)
황주영(15,000)

●북한선교 헌금●

(주)엔페이브(100,000) 남기국(10,000) 박혜영(30,000) 신경자(100,000) 이향자(50,000) 이해란(50,000)
장승아(50,000) 전해봉(20,000) 지선옥(20,000)

●베트남선교 헌금●

강연구(40,000) 강연구(40,000) 김영림(30,000) 박진희(40,000)

●아이티고아 선교헌금●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갓피플웨딩(40,000) 갓피플웨딩(40,000) 강민순(40,000) 고 순미(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순향)(40,000)
김상진(순향)(40,000) 김목례(40,000) 김목례(40,000) 김화련(50,000) 노윤정(40,000) 박서준(100,000)
박선인(40,000) 박선주(80,000) 새산성교회(40,000) 순향(40,000) 송현주(80,000) 안서영(송영목)(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재학(40,000) 이찬희(40,000) 이해란(40,000) 장요섭(순향)(40,000)
장정문(40,000) 조경희(40,000) 채신혜(30,000) 최준호(80,000) 하성화(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서양종교사상학의해(50,000) 홍정희(40,000)

●아이티 선교헌금●

무명(300,000) 박영미(35,000) 박영미(35,000) 박종래,최임선(20,000) 박재진(10,000)
서보연(10,000) 성한영(50,000) 이숙영(10,000) 이정희(3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최준호(30,000)



2025년 11월 소중한사람들 정기후원금(CMS)

(*)GBP(100,000)	강도숙(10,000)	강면구(20,000)	강명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지수(10,000)	강현미(20,000)	강화관(10,000)	고견화(10,000)
고남균(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유경(3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정아(10,000)	권택천(10,000)	(*)GBP(100,000)	김경리(10,000)
김경미(20,000)	김경민(1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광찬(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라함(30,000)	김란수(20,000)	김명수(15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마숙(10,000)	김미희(10,000)	김민경(30,000)	김번옥(10,000)	김배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보연(30,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소라(10,000)	김소망(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20,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숙미(10,000)	김소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승훈(30,000)	김연옥(10,000)
김영성(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옥(20,000)	김영인(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오래(10,000)	김옥경(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인자(30,000)	김인주(50,000)	김일행(20,000)	김재정(80,000)	김정화(20,000)	김종옥(1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10,000)	김진와(5,000)
김창영(10,000)	김천일(20,000)	김춘희(50,000)	김태조(10,000)	김행은(10,000)	김향순(5,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원(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효진(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말(10,000)	나지용(5,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한준(30,000)	도문식(30,000)
류명순(5,000)	류승환(10,000)	류효정(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민수희(10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화(10,000)	박경희(10,000)	박다은(5,000)	박명자(10,000)	박명희(1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문(2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양미(4,000)	박연주(10,000)	박영수(1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재용(3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원(10,000)	박진철(10,000)	박창권(10,000)	박재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현주(10,000)	박혜정(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오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사재신(20,000)	서기준(10,000)
서영원(20,000)	석영관(1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성미(2,000)
손오섭(10,000)	손진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신서진(30,000)	신순자(100,000)	신승우(40,000)	신은미(3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영경(30,000)	심정섭(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효철(1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재희(10,000)	양진옥(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민아(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정모(20,000)	유정열(10,000)	유준서(5,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성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수(10,000)	이경화(30,000)	이공미(100,000)	이광옥(2,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동욱(3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복자2(100,000)	이삼종(50,000)	이상진(2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수민(10,000)

(2025년 11월 01일 ~ 11월 30일까지)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애연(10,000)	이예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영석(100,000)	이예원(1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익신(10,000)
이의희(10,000)	이인용(20,000)	이재룡(1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란(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10,000)	이종수(40,000)	이종호(30,000)	이주아(20,000)	이준옥(1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익(5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혜진(5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수연(10,000)	임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문심(100,000)
장민희(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진(30,000)	장현진(100,000)	전애영(20,000)	전영선(10,000)	전영숙(50,000)	전재국(10,000)
전해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유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은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인철(50,000)	정재경(5,000)	정재미(5,000)	정진숙(10,000)	정혜자(10,000)	정혜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새롬(10,000)	조성림(10,000)	조성연(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은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준호(5,000)	조현미(10,000)
조혜숙(2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영자(50,000)	지재문(20,000)	진미재(2,000)	진순애(1,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익(10,000)
최경선(10,000)	최귀분(50,000)	최금현(30,000)	최민형(10,000)	최민홍(10,000)	최상혜(10,000)	최영숙(30,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희(10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20,000)	최혜정(100,000)	추윤희(2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진현(1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미(10,000)	허상익(30,000)	허시원(30,000)	허인애(30,000)
현정원(100,000)	홍순경(20,000)	홍영희(5,000)	홍유희(20,000)	홍재필(20,000)	홍정희(10,000)	홍주연(20,000)	홍현미(1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준문(10,000)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전화 또는 메일로 알려주시면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사정에 따라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날짜보다 3~4일 여유있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사람들 02-365-9106, 010-4935-2445/ street9106@naver.com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 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IM DONG BR SWIFT CODE : HVBKCR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를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현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 0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현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서울 소중한사람들 (노숙인사역) T. 02-365-9106 E-mail, street9106@naver.com

청평 힐링센터 (암환우사역) T. 031-582-0191 E-mail, si224@hanmail.net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02-365-9104(노숙인사역) / F.031-582-0199(암환우사역)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남, 여)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 목적지정 안함 ☐ 노숙인 사업 ☐ 노숙인 교회 ☐ 암 환우 힐링센터 ☒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 미안마 ☐ 아이티 ☐ 멕시코 ☐ 중국 ☐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 일시후원 ☐ 정기후원
	후원방법	☐ 자동후원(CMS) ☐ 직접 계좌이체 ☐ 현금 ☐ 기타()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 6일 ☐ 16일 ☐ 26일	통장구분	☐ 개인통장 ☐ 법인통장

노숙인사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암환우사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TEL 031-582-0191 FAX 031-582-0199 www.pphealing.com